

2024  
고2 문학  
천재(김)

## 2024 고2 문학 천재(김) | 4(1)(2) 상춘곡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 직전 보강



선생님! <상춘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상춘곡>의 특정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어. 해당 구절에 사용된 어휘, 표현 방법에 대해 묻거나 이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묻는 선지 등으로 다양하게 출제되었으므로 꼼꼼하게 지문을 분석해 둘 필요가 있단다. 특히 고사에서 인용한 표현은 미리 내용을 암기해 두어야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겠지?



대구법, 설의법, 영탄법, 열거법 등 다양한 표현법이 쓰였으므로 각 시구에 쓰인 표현법을 정리하며 공부해야 해. 또 학습 활동에서 언급하고 있는 감정이입(객관적 상관물)과 주객 전도가 드러난 부분을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단다. 해당 내용은 작품에 활용된 표현 방식을 묻는 서술형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되었어.



그 외에도 '숙세'와 '자연'을 대조하여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사는 삶의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 세속적인 가치를 멀리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드러낸다는 내용 등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단다. 화자가 양반 사대부이지만 위정자로서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 둘 필요가 있어.



상춘곡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던데, 어떤 내용에 유의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한 표현상의 특징이나 화자의 태도에 대한 내용 외에도, 정격 가사라는 갈래적 특징과 관련한 선지가 많이 출제되었어. 따라서 4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마지막 행이 평시조 종장의 음수율인 3·5·4·3과 유사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단다.



네. 감사합니다.

2024  
고2 문학  
천재(김)

2024 고2 문학 천재(김) | 4(1)(2) 상춘곡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 **홍진(紅塵)**(‘붉은 먼지’라는 뜻으로 ‘속세’를 의미함. → 관직에 나아가 정치에 참여하여 부귀와 공명을 누리는 공간. 화자가 있는 자연(산림)과 대조되는 공간.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속세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는 식의 틀린 선지로 다수 출제되었습니다.**)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하고

**넷사롬 풍류(風流)**(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를 미출가 못 미출가 ]([ ]: 속세의 세상 사람들이나 옛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풍류가 그에 못지않다는 자부심을 표현함. → 현 상황(자연에서 봄 풍경을 즐김)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남. **해당 작품의 시구에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나 표현 방법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 **천지간(天地間)**(‘하늘과 땅 사이’라는 뜻으로 ‘세상’을 의미함.) 남자(男子) 몸이 날만 한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학문을 닦고 수양하며 풍류를 즐기는 공간. → 속세(‘홍진’)와 대조되는 공간.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공간. **자연을 ‘안빈낙도’의 공간과 ‘삶의 현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설명을 <보기>로 제시하고 본문의 시각과 가장 유사한 것을 묻는 수능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므롤 것가** (설의법)

**수간모옥(數間茅屋)**(초라한 집. 안빈낙도(安貧樂道)의 공간. : 공간의 이동(화자는 ‘수간모옥→정자→시냇가→봉두’로 이동함.)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맑은 바람과 밝은 달 따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 → 소동파의 <적벽부>에서 인용함.) 되어셔라 ]([ ]: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속세에 묻힌 분들, 이내 생애 어떠한가./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이 세상 남자 몸이 나만 한 이 많건마는 / 자연에 묻혀 산다고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초가집 몇 칸을 푸른 시내 앞에 두고 / 송죽 울창한 곳에 자연의 주인 되었구나.

▶ 서사: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계절적 배경: 봄)이 도라오니

[ **도화 행화(桃花杏花)**(봄에 피는 복숭아꽃과 살구꽃)는 **석양리(夕陽裏)**(시간적 배경: 해 질 녘)에 띄어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푸른 버들과 향긋한 풀)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 ]: 봄의 아름다운 생명력. → 대구법, 영탄법.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 ‘도화 행화’와 ‘석양’의 붉은색, ‘녹양방초’의 푸른색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형상화함. **시구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색채어를 활용하여 자연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봄날의 풍경이 칼로 재단하고 붓으로 그려 낸 것 같다는 뜻.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함. → 대구법, 설의법, 영탄법)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럽다 ]([ ]: 조물주의 솜씨로 아름다운 봄 풍경을 만든 것으로 여겨 감탄하고 있음. →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찬양함.)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화자가 느낀 봄의 흥취를 객관적 상관물인 ‘새’에 이입하여, 새가 봄기운을 이기지 못해 운다고 표현함. → 감정 이입, 의인법. 화자가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에 이르렀음.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함. **본문의 정경을 표현할 때 고려할 점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피꼬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넣어 청각적 이미지도 살려야겠어.’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상춘곡>의 ‘새’**



**[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공감각적 심상(후각의 시각화). 청향: 푸른 향기) 낙홍(落紅)(떨어진 꽃잎. 시각적 심상)은 옷새 진다 ]**([ ]: 봄바람이 푸른 시내를 건너오며 머금고 온 맑은 향기가 술잔에 떨어지고, 아름다운 봄꽃이 옷에 떨어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함. 대구법) >(< >: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막 익은 술을 마실 때 봄바람이 불어 꽃이 떨어지는 풍류를 노래함.)

**준중(樽中)**(술독의 안)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남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어린아이)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작은 소리로 읊으며 천천히 거닐. '소요음영'과 같은 의미)하야 시냇 ㅁ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아주 맑고 깨끗한 모래) **조흔 물**(‘좋다’는 현대 국어의 ‘좋다’라는 의미가 아닌 ‘깨끗하다’라는 의미임.)에 잔 시어 부어 들고

**[ 청류(淸流)를 굽어보니 써오느니 도화(桃花)(복숭아 꽃 → 화자가 ‘무릉’을 연상하게 된 계기) | 로다**

**무릉(武陵)**(무릉도원. 시인 도연명이 지은 <도화원기>에 나오는 말로, 속세를 떠난 이상향을 의미함.)이 갓갓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 ]: 화자가 있는 시냇가 상류가 무릉도원일 것이라는 화자의 상상이 드러남. 한 어부가 물 위로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더니 별천지가 펼쳐진 곳을 찾았다는 고사에서 유래함. **본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시냇가에서는 고사를 인용하여 풍경과 흥을 표현하였고, 산에서 본 풍경은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였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본문을 연극이나 영상으로 기획할 때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유형의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갓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 놓고 / 꽃나무 가지 꺾어 잔 수 세며 먹으리라.  
 화창한 바람이 살짝 불어 푸른 시내 건너오니  
 맑은 향은 잔에 지고 떨어지는 붉은 꽃잎은 옷에 지네.  
 술독 안이 비었거든 나에게 아뢰어라. / 아이더러 술집에서 술 받아 오라 하여  
 어른은 막대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 흥얼대며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맑은 모래 깨끗한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 맑은 물 굽어보니 떠오르는 것이 복숭아꽃이로다.  
 무릉도원 가깝도다, 저 들이 그곳인가.

▶ 본사 4: 술과 풍류

**송간(松間) 세로(細路)**(소나무 숲 사이로 난 길)에 **두견화(杜鵑花)**(진달래)를 부치 들고

**[ 봉두(峰頭)**(산봉우리. ‘수간모옥(시비)’에서 ‘봉두’로 공간을 이동함. → 속세(와 가까운 세계)로부터 점차 탈속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에 급피 올라 **구름 소귀 안자 보니**(구름이 보일 정도로 높이 올라왔음을 알 수 있음.)

**천촌만락(千村萬落)**(수많은 마을)이 곳곳이 버려 잇네 ]([ ]: 산꼭대기에서 아래쪽 마을을 내려다봄. **구절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화자 자신을 마치 신선처럼 그려내며 치국과 애민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연하일휘(煙霞日輝)**(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는 **금수(錦繡)**(수를 놓은 비단)를 재꺾는 듯 ]([ ]: 안개, 노을, 햇살을 비단에 비유함. → 직유법)

**[ 엇그제 검은 들(겨울 들판)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샤 ]**([ ]: 자연의 변화를 색감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함.)

솔숲 오솔길에 진달래 부어잡고 /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수많은 마을들이 곳곳에 벌여 있네. / 연하일휘는 비단을 펼친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넘치는도다.

▶ 본사 5: 산봉우리에서 바라본 봄의 경치

**공명(功名)도 날 식우고 부귀(富貴)도 날 식우니**(공명과 부귀가 화자를 거린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화자가 공명과 부귀를 꺼리고 있는 것임. → 주체와 객체가 전도되어 표현됨. 대구법, 의인법. **본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객체를 주체로 전도시켜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인생관을 제시하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청풍명월(淸風明月)(맑은 바람과 밝은 달로, '자연'을 의미함.) 외(外)에 었던 벗이 잇스올고 】([ ]: 자연 친화적 태도. 설의법, 의인법)

단표누항(簞瓢陋巷)(《논어》에 나오는 말로, 누항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뜻임. 흔히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룰 때 쓰이는 말이며 '단사표음', '안분지족', '안빈낙도'와 의미가 유사함.)에 **훗튼 혜음**(헛된 생각인 공명과 부귀. 세속적인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 헛늬

【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평생 즐거움을 누림.)이 이만흔들 **엇지헛리**(설의법) 】([ ]: 자연을 벗 삼아 청빈한 생활을 하며 공명과 부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 가사의 마지막 행이 평시조 종장의 음수율인 3·5·4·3과 같거나 비슷하도록 지은 정격 가사임이 드러남. 본문에 대한 적절한 감상을 묻는 문제에서 '화자가 '천춘만락'을 감상하며 '단표누항에 훗튼 혜음 아니헛'는 봉두는 화자가 삶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군.'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오.  
단표누항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 아무튼, 한평생 삶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 결사: 안빈낙도에 대한 만족  
- <상춘곡('봄을 맞아 경치를 구경하며 즐기는 노래'라는 의미임.)>

### 내용 학습 1

1. 다음 빈칸을 채우며 각 공간에 나타난 화자의 모습을 설명해 보자.

→ 작품 속 공간과 화자의 모습을 찾아서 정리하며 작품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

공간	화자의 모습
시비, 정자	봄이 와서 만물이 소생하는 가운데 혼자 그 진미를 느낌.
시냇가	술을 마시며 자연과 하나가 됨을 느끼고 무릉도원을 생각함.
봉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공명과 부귀를 멀리하며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함.

(작년과 달리 각 공간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모습에 대해 묻는 문제가 비교적 적게 출제되었습니다.)

### 내용 학습 2

2. 다음 구절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

→ 참신한 표현이 돋보이는 구절들을 중심으로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뭇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 수풀에서 울고 있는 새가 봄의 흥취를 이기지 못해 소리마다 교태라는 것은 그런 봄의 흥취에 젖어 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표현된 것이다.(작품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자연에서 느껴지는 춘흥(春興)을 다

2024  
고2 문학  
천재(김)

2024 고2 문학 천재(김) | 4(1)(2) 상춘곡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 **홍진(紅塵)**(‘\_\_\_\_\_’라는 뜻으로 ‘\_\_\_\_\_’를 의미함. → 관직에 나아가 정치에 참여하여 \_\_\_\_\_와 \_\_\_\_\_을 누리는 공간. 화자가 있는 \_\_\_\_\_(\_\_\_\_\_)과 대조되는 공간.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속세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는 식의 틀린 선지로 다수 출제되었습니다.**)에 맞춘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하고 **넷사름 풍류(風流)**(화자가 \_\_\_\_\_적으로 인식하는 대상)를 미출가 못 미출가 ]([ ]: 속세의 세상 사람들이나 옛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풍류가 그에 못지않다는 \_\_\_\_\_을 표현함. → 현 상황(\_\_\_\_\_에서 \_\_\_\_\_을 즐김)에 대한 화자의 \_\_\_\_\_감이 드러남. **해당 작품의 시구에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나 표현 방법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 **천지간(天地間)**(‘하늘과 땅 사이’라는 뜻으로 ‘세상’을 의미함.) 남자(男子) 몸이 날만 한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학문을 닦고 수양하며 \_\_\_\_\_를 즐기는 공간. → \_\_\_\_\_(‘\_\_\_\_\_’)와 대조되는 공간. 화자가 \_\_\_\_\_는 공간. **자연을 ‘안빈낙도’의 공간과 ‘삶의 현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설명을 <보기>로 제시하고 본문의 시각과 가장 유사한 것을 묻는 수능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에 맞춰 이서 지락(至樂)을 **므롤 것가(설의법)**

**수간모옥(數間茅屋)**(\_\_\_\_\_한 집. \_\_\_\_\_(安貧樂道)의 공간. \_\_\_\_\_: \_\_\_\_\_의 이동(화자는 ‘\_\_\_\_\_ → \_\_\_\_\_ → \_\_\_\_\_’로 이동함.)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맑은 바람과 밝은 달 따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 → 소동파의 <적벽부>에서 \_\_\_\_\_함.) 되어셔라 ]([ ]: \_\_\_\_\_에 묻혀 사는 \_\_\_\_\_.)

속세에 묻힌 분들, 이내 생애 어떠한가. /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이 세상 남자 몸이 나만 한 이 많건마는 / 자연에 묻혀 산다고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초가집 몇 칸을 푸른 시내 앞에 두고 / 송죽 울창한 곳에 자연의 주인 되었구나.

▶ 서사: \_\_\_\_\_에 묻혀 사는 \_\_\_\_\_

<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계절적 배경: \_\_\_\_\_)이 도라오니

[ **도화 행화(桃花杏花)**(봄에 피는 \_\_\_\_\_과 \_\_\_\_\_)는 **석양리(夕陽裏)**(\_\_\_\_\_적 배경: \_\_\_\_\_)에 띄어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_\_\_\_\_버들과 향긋한 풀)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 ]: \_\_\_\_\_의 아름다운 생명력. → \_\_\_\_\_법, \_\_\_\_\_법. 화자의 \_\_\_\_\_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 ‘도화 행화’와 ‘석양’의 \_\_\_\_\_색, ‘녹양방초’의 \_\_\_\_\_색을 활용하여 \_\_\_\_\_적으로 형상화함. **시구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_\_\_\_\_를 활용하여 자연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봄날의 풍경이 칼로 재단하고 붓으로 그려 낸 것 같다는 뜻. 봄날의 \_\_\_\_\_에 감탄함. → \_\_\_\_\_법, \_\_\_\_\_법, \_\_\_\_\_법)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럽다 ]([ ]: \_\_\_\_\_의 솜씨로 \_\_\_\_\_을 만든 것으로 여겨 감탄하고 있음. → 봄의 \_\_\_\_\_를 \_\_\_\_\_함.)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화자가 느낀 봄의 흥취를 \_\_\_\_\_인 ‘\_\_\_\_\_’에 이입하여, 새가 봄기운을 이기지 못해 운다고 표현함. → \_\_\_\_\_, \_\_\_\_\_법. 화자가 ‘\_\_\_\_\_’(物我一體)의 경지에 이르렀음. \_\_\_\_\_적 이미지를 활용함. **본문의 정경을 표현할 때 고려할 점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_\_\_\_\_가 울고 있는 모습을 넣어 \_\_\_\_\_적 이미지도 살려야겠어.’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자연을**



2024  
고2 문학  
천재(김)

2024 고2 문학 천재(김) | 4(1)(2) 상춘곡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상춘곡> 제재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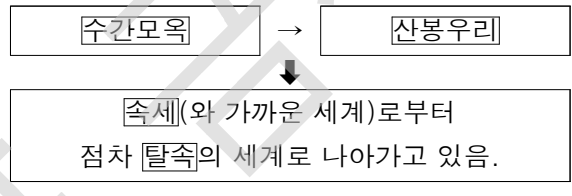
갈래	서정 가사, 양반 가사, 은일 가사, 강호 한정가
성격	서정적, 묘사적, 자연 친화적, 예찬적
제재	봄의 아름다운 풍경
운율	3(4)·4조, 4음보 연속체
주제	봄 경치를 즐기는 강호가도(江湖歌道)와 안빈낙도(安貧樂道)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봄의 아름다운 정경 묘사와 화자의 정서 표출이 어우러짐.</li> <li>대구법, 직유법, 의인법, 고사 인용, 설의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함.</li> <li>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주체와 객체를 전도하여 화자의 인생관을 제시함.</li> <li>규칙적 음보의 반복과 대구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흥을 드러냄.</li> </ul>
출전	《물우헌집》 (조선 성종)

2. <상춘곡> 작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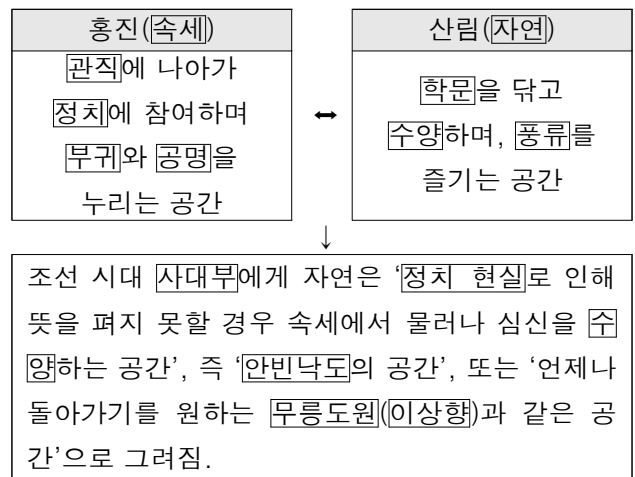
서사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1~6행)
본사 1	봄의 아름다운 경치(7~12행)
본사 2	봄의 흥취(13~16행)
본사 3	산수 구경의 권유(17~19행)
본사 4	술과 풍류(20~30행)
본사 5	산봉우리에서 바라본 봄의 경치(31~35행)
결사	안빈낙도에 대한 만족(36~39행)

3. <상춘곡> 시상 전개

이 작품은 화자의 시선(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처음에는 좁은 공간인 '수간모옥'에서 출발하여 점차 넓은 공간인 '산봉우리'로 이동하며 공간을 확대하고 있음.



4. <상춘곡>에 드러나는 자연관



TEST 1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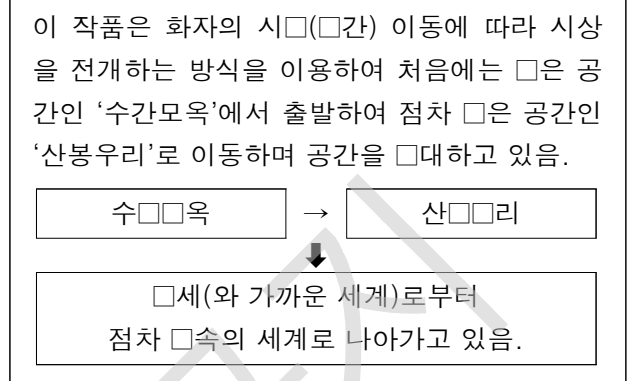
1. <상춘곡> 제재 개관

갈래	서□ 가□, 양□ 가□, 은□ 가□, 강□ 한 □□
성격	서□적, 묘□적, 자□ 친□적, 예□적
제재	□의 아□□운 풍□
운율	3(4)·□조, □음보 연□□
주제	□ 경□를 즐기는 강□□도(江湖歌道)와 안□□도(安貧樂道)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 아름다운 정□ 묘□와 화자의 정□ 표□이 어우러짐.</li> <li>대구법, 직유법, 의인법, 고사 인용, 설의법 등 다□한 표□ 방□을 사용함.</li> <li>화자의 시□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주□와 객□를 전도하여 화자의 인□□을 제시함.</li> <li>규칙적 음□의 반복과 대□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흥을 드러냄.</li> </ul>
출전	《불□□집》(조선 성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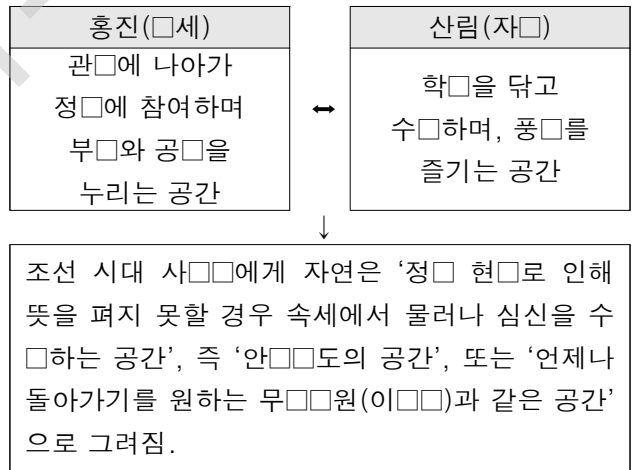
2. <상춘곡> 작품 구성

서사	자□에 묻혀 사는 즐□□(1~6행)
본사 1	봄의 아름다운 경□(7~12행)
본사 2	봄의 흥□(13~16행)
본사 3	산□ 구□의 권유(17~19행)
본사 4	□과 풍□(20~30행)
본사 5	산□□리에서 바라본 봄의 경치(31~35행)
결사	안□□도에 대한 만족(36~39행)

3. <상춘곡> 시상 전개



4. <상춘곡>에 드러나는 자연관





TEST 2단계

1. <상춘곡> 제재 개관

갈래	사 자 가 사, 오 버 가 사, 오 오 가 사, 가 흥 흥 자 가
성격	사 자 적, 가 사 적, 자 오 자 흥 적, 오 자 적
제재	버 의 오 르 드 오 표 가
운율	3(4)·4조, 4음보 오 사 자
주제	버 가 자 를 즐기는 가 흥 가 드 (江湖歌道)와 오 버 드 (安 貧樂道)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 의 아름다운 자 가 가 사 와 화자의 자 사 표 자 이 어우러짐.</li> <li>• 대구법, 직유법, 의인법, 고사 인용, 설의법 등 드 오 한 표 흥 버 버 을 사용함.</li> <li>• 화자의 사 사 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자 자 와 가 자 를 전도하여 화자의 오 사 가 을 제시함.</li> <li>• 규칙적 오 버 의 반복과 드 가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흥을 드러냄.</li> </ul>
출전	《버 오 흥 자》 (조선 성종)

2. <상춘곡> 작품 구성

서사	자 오 에 묻혀 사는 자 가 오 (1~6행)
본사 1	봄의 아름다운 가 자 (7~12행)
본사 2	봄의 흥 자 (13~16행)
본사 3	사 사 가 가 의 권유(17~19행)
본사 4	사 과 표 르 (20~30행)
본사 5	사 버 오 르 에서 바라본 봄의 경치(31~35행)
결사	오 버 드 드 에 대한 만족(36~39행)

3. <상춘곡> 시상 전개

이 작품은 화자의 사 사 (가 가)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처음에는 자 오 공간인 '수간모옥'에서 출발하여 점차 드 오 공간인 '산봉우리'로 이동하며 공간을 흥 드 하고 있음.

사 가 드 오 → 사 버 오 르

↓

사 사 (와 가까운 세계)로부터 점차 드 사 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

4. <상춘곡>에 드러나는 자연관

<p>흥진(사 사)</p> <p>가 자 에 나아가</p> <p>자 자 에</p> <p>참여하며 버 가</p> <p>와 가 드 을</p> <p>누리는 공간</p>	→	<p>산림(자 오)</p> <p>흥 드 을 닦고 사</p> <p>오 하며, 표 르</p> <p>를 즐기는 공간</p>
---	---	---

↓

조선 시대 사 드 버 에게 자연은 '자 자 흥 사 로 인해 뜻을 펴지 못할 경우 속세에서 물러나 심신을 사 오 하는 공간', 즉 '오 버 드 드 의 공간', 또는 '언제나 돌아가기를 원하는 드 르 드 오 (오 사 흥)과 같은 공간'으로 그려짐.

TEST 3단계

1. <상춘곡> 제재 개관

갈래	□□ □□, □□ □□, □□ □□, □□ □□ □
성격	□□적, □□적, □□ □□적, □□적
제재	□의 □□□□ □□
운율	□(□)·□조, □음보 □□□
주제	□ □□를 즐기는 □□□□(江湖歌道)와 □□□□(安貧樂道)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 아름다운 □□ □□와 화자의 □□ □□이 어우러짐.</li> <li>대구법, 직유법, 의인법, 고사 인용, 설 의법 등 □□한 □□ □□을 사용함.</li> <li>화자의 □□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와 □□를 전도하여 화자의 □□□□을 제시함.</li> <li>규칙적 □□의 반복과 □□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흥을 드러냄.</li> </ul>
출전	《□□□□》(조선 성종)

2. <상춘곡> 작품 구성

서사	□□에 문혀 사는 □□□(1~6행)
본사 1	봄의 아름다운 □□(7~12행)
본사 2	봄의 □□(13~16행)
본사 3	□□ □□의 권유(17~19행)
본사 4	□□과 □□(20~30행)
본사 5	□□□□에서 바라본 봄의 경치(31~35행)
결사	□□□□에 대한 만족(36~39행)

3. <상춘곡> 시상 전개

이 작품은 화자의 □□(□□)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처음에는 □□ 공간인 '수간모옥'에서 출발하여 점차 □□ 공간인 '산봉우리'로 이동하며 공간을 □□하고 있음.

□□□□ → □□□□

↓

□□(와 가까운 세계)로부터  
점차 □□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

4. <상춘곡>에 드러나는 자연관

<p>흥진(□□)</p> <p>□□에 나아가 □□에 참여하며 □□와 □□을 누리는 공간</p>	↔	<p>산림(□□)</p> <p>□□을 닦고 □□하며, □□를 즐기는 공간</p>
↓		

조선 시대 □□□□에게 자연은 '□□ □□로 인해 뜻을 펴지 못할 경우 속세에서 물러나 심신을 □□하는 공간', 즉 '□□□□의 공간', 또는 '언제나 돌아가기를 원하는 □□□□(□□□□)과 같은 공간'으로 그려짐.

TEST 4단계

1. <상춘곡> 제재 개관

갈래	_____, _____, _____, _____
성격	____적, ____적, _____적, ____적
제재	__의 _____
운율	_____조, _____음보
주제	_____를 즐기는 _____(江湖歌道)와 _____(安貧樂道)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__의 아름다운 _____와 화자의 _____이 어우러짐.</li> <li>• 대구법, 직유법, 의인법, 고사 인용, 설의법 등 ____한 _____을 사용함.</li> <li>• 화자의 _____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____와 ____를 전도하여 화자의 _____을 제시함.</li> <li>• 규칙적 _____의 반복과 _____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흥을 드러냄.</li> </ul>
출전	《_____》(조선 성종)

2. <상춘곡> 작품 구성

서사	____에 묻혀 사는 _____(1~6행)
본사 1	봄의 아름다운 _____(7~12행)
본사 2	봄의 _____(13~16행)
본사 3	_____의 권유(17~19행)
본사 4	__과 _____(20~30행)
본사 5	_____에서 바라본 봄의 경치(31~35행)
결사	_____에 대한 만족(36~39행)

3. <상춘곡> 시상 전개

이 작품은 화자의 \_\_\_\_ (\_\_\_\_)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처음에는 \_\_\_\_ 공간인 '수간모옥'에서 출발하여 점차 \_\_\_\_ 공간인 '산봉우리'로 이동하며 공간을 \_\_\_\_하고 있음.

\_\_\_\_\_ → \_\_\_\_\_

↓

\_\_\_\_\_ (와 가까운 세계)로부터 점차 \_\_\_\_\_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

4. <상춘곡>에 드러나는 자연관

흥진(____) _____에 나아가 _____에 참여하며 _____와 _____을 누리는 공간	↔	산림(____) _____을 닦고 _____하며, _____를 즐기는 공간
--	---	--

↓

조선 시대 \_\_\_\_\_에게 자연은 '\_\_\_\_\_로 인해 뜻을 펴지 못할 경우 속세에서 물러나 심신을 \_\_\_\_\_하는 공간', 즉 '\_\_\_\_\_의 공간', 또는 '언제나 돌아가기를 원하는 \_\_\_\_\_(\_\_\_\_)과 같은 공간'으로 그려짐.

2024  
고2 문학  
천재(김)

2024 고2 문학 천재(김) | 4(1)(2) 상춘곡 복습 필기용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상춘곡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하고  
 넷사롬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머물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서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꺾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뚫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룰소냐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애 안자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흔디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青)으란 오늘 흐고 욱기(浴沂)란 내일(來日) 흐새  
 아춤에 채산(採山)흐고 나조히 조수(釣水)흐새